

Contents

- 03 “받는 분들이 기쁨으로 체감하는 봉사하려고 노력”
- 04 “거저 받은 것, 거저 돌려주고 있어요!”
- 06 경기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17명 형사입건
- 07 “불법 대부업자는 A씨에게 부당이자, 정신적 피해보상하라”
- 08 화성시 인구, 올해 말 90만 넘을 수 있나?



남다른 봉사열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수여성병원 정진석 원장. 정 원장은 봉사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다. "이왕 봉사를 할 바에는 정성을 들여 피봉사자분들과 호흡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관련기사 3면

미세먼지 해결은 준엄한 국민명령, “탈원전 백지화도 고려 돼야”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건강관리 유념해야
미세먼지 해결사로 나선 반기문, 국민적 기대감 높아
자동차 홀짝운행 등 정부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선진 의식 필요

정부는 올해 상반기 10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에 1조원의 미세먼지 대책 환경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2일 대정부 질문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잦아지면 자발적 차량 2부제 실시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차량 2부제는 국민의 합의와 동의를 구해서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12~13년 이내에 경유차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함으로써 '클린 디젤 정책'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미세먼지 해결사로 나섰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바람대로 될지는 의문이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이제 온 국민이 촉각을 세우며 귀를 기울이게 됐다. 그만큼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 수준의 심각한 국내정치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 사태에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하나로 뭉쳐 이를 극복했다. 이는 구제역을 국민 모두가 재난으로 인식하면서 가능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위기 극복 국정 운영사례로 두고두고 남을 쾌거이다. 이제 정부는 미세먼지 극복에 드론 활용 등 4차 산업을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나누었다.

점목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위험성, 그리고 개인 대처 방법

최근 겨울과 봄을 잇는 비가 대지를 적시면서 미세먼지가 주춤거리고 있다. 하지만 사상 유례가 없는 겨울철 미세먼

지를 겪으면서 온 국민들의 초관심사가 '미세먼지와 건강'이 됐다. 이처럼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중국발 계절풍 영향이 크다. 중국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국가적으로 난방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중국의

▶▶▶ 2면으로 이어집니다.

봉담 KOAROO Zoom 시티

화성시 봉담 투자가 몰리는 이유?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취득, 임대등록시 양도세/종부세 혜택 없음	해당 없음
규제지역 외에도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수도권 6억& 25.7평, 비수도권 3억&30평 이하만 가능	해당 없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대출 LTV 40%적용, 공시 9억 초과 주택은 대출 금지	해당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있으면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불가	해당 없음

대표상담전화 031-893-0297

▶▶▶ 1면에서 이어집니다.

난방 원료는 갈탄과 석탄 위주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대기 오염물질이 계절풍을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여기에는 북한의 난방 사정 역시 한 몫을 한다. 북한은 아파트 안에서도 갈탄과 석탄을 사용할 정도로 역시 난방 시설이 열악하다. 여기에 국내 역시 지역난방, 자동차 매연, 산업 현장 등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미세먼지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①원인과 위험성: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한 올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입자크기가 매우 작고, 호흡기를 거쳐 폐나 혈관 등 체내에 침투한다. 체내에 들어온 미세먼지는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각 기관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기관지염과 천식 등이 호흡기 질환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미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특히 겨울철 초미세먼지는 봄철의 황사보다 훨씬 고농도 미세먼지라 더욱 인체에 치명적이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흙먼지, 꽃가루 등의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크게 나뉜다. 인위적 요인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의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를 비롯해 건설이나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먼지들이 대기 중에 정체하여 계속 쌓이게 되면 미세먼지의 농도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②대처방법: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생활 속 방법으로는 첫째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청소기 사용보다 물걸레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청소기는 바닥의 먼지들까지 공중으로 띄우고, 필터 역시 미세먼지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방출하는 경우가 많다. 분무기로 물을 뿌려 공중에 떠 있는 미세먼지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물걸레질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또 입보다 코로 숨을 쉬면 코 속의 섬

모들이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 작용을 도와준다.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가 너무 작아 전부 걸러주지는 못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는 것보다 세균 침입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높이는 녹차나 도라지꽃차, 모과차, 보리차, 홍차 등을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각각 가지고 있는 효능들이 조금씩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차를 골라 기관지를 보호해주면 작은 도움이 된다.

▲국가적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이 4조원대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국민 대다수는 미세먼지 원인으로 '중국 등 주변국 영향'을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큰 일상생활 변화로 '야외 활동보다 실내활동 증가'(37%), '마스크 착용'(31%) 등이라고 답했다. 특히 국립암센터·경희대병원, 신생아 174만명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PM10)가 심한 지역에 사는 임신부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임신부보다 미숙아(이른둥이)를 낳을 위험이 1.57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2018년 3월 30일자)에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과 일본에서 매년 3만여명이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문제는 2차 생성 초미세먼지, 국내 요인이 더 높아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이산화질소를 비롯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태양빛을 만나면 광화학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로 바뀐다. 그리고 국내 초미세먼지의 75% 이상이 입자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μm) 미만인 2차 생성 초미세먼지로 나타났다. 2차 생성 초미세먼지는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이 공기 중 화학반응으로 결합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따라



▲ 앞이 안보일 정도로 자욱한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다.

서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나사 공동연구팀의 2017년 7월 발표는 국내 미세먼지 원인으로 34%가 중국발이고, 52%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만 놓고 보면 한반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중국발 오염물질의 2차 생성 초미세먼지가 주효하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을 보다 더 과학적으로 규명해 거기에 맞춰 반드시 중국과 협상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지난해 대기오염 조사기관 '에어비주얼(Air Visual)'이 73개국 3000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한 결과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가 2~3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41.2\mu\text{g}/\text{m}^3$ 로 세계 12위, 베트남($32.9\mu\text{g}/\text{m}^3$) 17위, 태국($26.4\mu\text{g}/\text{m}^3$)이 23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농도가 $24.0\mu\text{g}/\text{m}^3$ 로 27위, 하얀 마스크의 나라 일본은 연평균 $12\mu\text{g}/\text{m}^3$ 로 55위를 기록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충격적인 것은 지난 3월 6일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공기질이 가장 나쁜 곳으로 서울이 공기질 지수(AQI) 214로 1위에 올랐고, 인천이 208로 2위, 부산이 152로 10위를 기록했다. 한국 도시 3곳이 공기질이 안 좋은 도시로 세계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반기문에 거는 기대,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이 관건

지난 17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청와대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그리고 21일 반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반 총장님은 유엔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기후 관련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셨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신 분"이라면서 "미세먼지가 국내적 문제뿐 아니고 중국과도 관련돼 있는 문제라 한중이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기문 전 총장이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반기문 전 총장의 외교적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특히 범국가적 기구 신설인 만큼 모든 정당, 산업계, 시민사회 등까지 폭넓게 참여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반 전 총장은 유엔 활동기간 기후변화 등 국제환경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경험이 있다. 더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요청해 임명하는 중국 주도의 '보아오(Boao)포럼'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한·중 미세먼지 관련 양국 공조와 새 전기 마련에 외교력 및 국제사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고려다.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책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접목 등 제안

22일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하나로 25개 공공기관에 2022년까지 13억 4천만원을 투입해 전기차 55대를 보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2022년까지 6643억 원을 투입해 도 전체에 전기차, 수소차, 전기버스 등 친환경차 3만 3,569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오래된 보일러를 전면 교체하고, 교체비용은 경기도에서 70% 최대 3천만 원 가량을 지원한다. 도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업의 연료비 부담도 덜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는 낡고 오래된 공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경기연구원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면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대한 만능적인 관리인력 부족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기술 활용 방안으로는 인공밀집 및 고농도지역에 IoT를 활용한 공기질 측정 시스템 도입,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의 배출시설에 각종 감지 센서 설치,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 시스템 도입,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경기도 대기환경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경기도 안산을 방문해 "중국이 미세먼지 책임을 줄곧 부정했는데 최근 양국 환경부 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미세먼지의 일부가 중국발일 수도 있겠다. 같이 검토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사람과 뉴스

www.pnnews.co.kr

발행·편집인 안근학 편집국장 김현섭 편집부국장 곽재근 서울본부장 박용우 대기자 이동연 편집부장 송진철 제2사회부장 임승수 사회문화부차장 유지현 인쇄인 (주)대인프린테크 대표전화 031-681-7117 | FAX 050-4029-9068 | 광고·구독 031-681-7117

등록번호 경기,다50659 | 제1호 2019년2월28 | 발행처 사람과뉴스 신문사
본지는 인터넷 신문(사람과뉴스, 정도일보)의 자매지입니다.
우편으로 받아보시려면 3,500원의 발송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2-1349-0285-31(사람과뉴스 안근학)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6면으로 이어집니다.

“받는 분들이 기쁨으로 체감하는 봉사 하려고 노력”

‘기부와 봉사를 통해 스스로 깨끗해지는 감정’ 나누고 파

지난 3월 15일 수원시 소재 영화관에서 진행된 진풍경이 연출된다.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 단체 관람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몸이 불편해서 영화관 나들이를 하기 힘든 지체장애인들이었던 것. 매년 지역 사회를 위해 장학금과 기부금 등을 투척하는 정진석 원장이 이번에는 영화관을 빌려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해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이날 더 큰 감동은 이들 장애인이 바로 다음 17일 생일을 맞는 정 원장을 위해 깜짝 생일 잔치를 열어 준 것. 늘 남에게 주기만 하던 정 원장으로서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이날 본 영화 증인은 이한 감독 연출로 배우 정우성과 김향기 양이 출연해 자폐가 무기력한 정신병이나 바보같은 것이라는 편견어린 시선에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다.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여성병원은 개인병원으로서 규모가 크다. 또 근무하는 여의사들도 많고 친절도는 타 병원에 비해 최고를 자랑한다. 유방암을 비롯 갑상선, 자궁, 항문 등 여성의 예민한 부위에 대한 전반적인 진료가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 그외 2내과, 외과, 소아과, 한방, 치과 등 건강검진센터도 운영한다.

또 수여성병원은 소외되고 어려운 환자는 물론 불우한 이웃에게도 항상 문이 열려있다. 나눔의 아름다움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병원이다. 이는 정진석 원장의 특별한 가치관, 즉 나눔과 봉사를 소명으로 알고 실천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 가능하다.

17일 원장실 등에서 진행된 인터뷰의 초점은 남다른 그의 봉사 활동 및 그가 치관에 초점을 두었다. 정진석 원장은 진료를 하는 근무 시간외에는 항상 남에게 줄 수제비누를 틈틈이 만들고 포장한다. 그 흔한 골프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진료와 수술 등 업무 외 시간은 오직 봉사 활동 뿐이다. 그래서일까? 그의 주위에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 거린다. 그래서 그는 즐겁다. 왜냐하



▲ 정진석 원장은 지난 16일 수원시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을 위해 영화관을 빌려 사랑을 나누었다. 다음 날 생일인 그를 위해 장애인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다.

면 남을 돕는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기 때문이다.

정진석 원장은 어떻게 의사가 됐을까?

"우리 모두는 미래의 장애인이다. 처음 공개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형도 후천적 장애인이다. 학교 선생님께서 공부를 못한다고 머리 등을 심하게 맞았고, 이후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다. 당시에는 학교 체벌이 당연하게 느껴지던 시기였다. 그리고 나는 장애를 겪는 형을 지켜보며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그는 전한다. 또 정 원장은 지금까지 남모르게 장애인 쌍둥이 가정을 후원하는 등 드러나지 않은 선행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정 원장은 형을 잘 돌보며 보살피고 있다. 남을 위해 봉사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형제에는 더 지극한 법이다.

정 원장은 또 "처음 내가 봉사활동을 할 때 병원홍보를 위해 봉사를 한다는 등 보이지 않는 편견이 있었다. 나는 그에 굴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이제 그런 편견은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쪽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봉사와 기부 어떤 국한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마움을 표현하고 느끼는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

기쁨을 느껴왔던 그가 몇년 전부터는 몸으로 부대끼는 봉사의 맛에 푹 빠졌다. 그는 대를 이어 아들이 의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져 아들이 의대에 진학해 아버지의 길을 따르고 있다. 부자가 의료봉사를 함께 펼치는 모습이 벌써부터 눈 앞에 그려지고 있다.

"병원을 개원하고는 이웃과 함께 하는 병원이 되고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는 분들이 보다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다. 기부와 봉사 등의 선행은 나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준



▲ 늦은 점심을 찾아온 손님과 함께 먹고 있는 모습

한다. 지역사회의 편견을 깨기 위해 그가 기울였을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남다른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정진석 원장. 그는 병원 차원의 금전적 지원과 각종 행사를 넘어서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땀과 노력이 깃들여진 봉사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는 자원봉사에 대한 신념도 확고했다. "저는 무늬만 봉사, 시늉으로 그치는 봉사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봉사를 받는 분들이 기쁨으로 체감할 수 있는 봉사를 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 병원은 1만여개의 수제비누를 2개월간 만들고 있다. 필요로 하는 곳에 무료로 전해줄 예정이다. 이것 역시 조건없이 베푸는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으로 하는 기부도 소중하지만, 돈만 주는 기부보다는 직접 정성을 들이는 봉사의 기쁨이 아주 크다. 봉사를 통해 행복함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개원 10주년을 맞은 수여성병원. 정진석 원장은 개원과 더불어 지금까지 병원 차원의 많은 기부와 후원금을 냈다. 그동안 정 원장은 지역 장학금 쾌척과 불우 이웃 김장 나눔 행사, 노인복지센터 의료봉사는 매년 꾸준히 하고 있다. 캄보디아 의료봉사, 팽목항 방문 후 조도에서의 의료 활동, 동남아시아 아동초청 건강검진도 실시했다.

그리고 기부와 후원을 통해 남을 돕는



▲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학금 전달식 모습

다. 모든 분들의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바란다" 어려운 사람 곁에서 인술을 나누며, 소신있는 봉사 활동을



▲ 작년 캄보디아 의료봉사. 그는 휴가를 얻어 봉사를 떠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기에 그 봉사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 열중한다고 말한다.

펼치는 정진석 원장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임승수 기자



▲ 정 원장은 꽃선물이나 물품 기부 등을 할 때 항상 정성을 다해 최고의 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뒤로 보이는 상자는 무료로 나누어 줄 수제비누를 포장해 놓은 1만여개 가운데 한 부분이다.

“거저 받은 것, 거저 돌려주고 있어요!”

▶ 오산 스마트폰 재능기부단, 남 다른 재능 기부 화제



▲ 자신의 재능을 무료기부를 통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자랑스러운 강사들

"평소 광상욱 시장께서는 '교육의 선순환'을 강조하셨어요. 시장님은 '백년교육도시가 오산의 꿈'이라고 강조하시죠. 특히 소외계층 등을 위한 무료 교육, 무료 문화 혜택 등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 일련의 과정이 시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무료 컴퓨터 교육이었습니다. 어찌보면 그 무료 교육을 받은 우리 같은 수료생들이 현재 오산 시민을 상대로 스마트폰 무료 교육을 하고있으니 확실히 '교육의 선순환'이구나 싶습니다." -김제영 단장.

▶ 교육도시 오산의 무료 컴퓨터 교육 과정



▲ 교육현장 모습. 강사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해 일대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교육도시인 오산시 정보통신과(과장 이제구)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컴퓨터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를 접하지 못한 소외계층 및 어르신 세대 등을 위한 시책이다.

오산시의 슬로건은 '교육도시'이다.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수 많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 시민 대상 무료 컴퓨터 교육이 있고, 그 과정을 수료한 시민들이 2016년 말부터 재능기부에 나섰다. 이듬하여 오산시 스마트폰 재능기부단(단장 김제영, 55세, 누읍동!)

▶ 2016년 창단 이후 1500여명 수료생 배출, 재 강의 신청도 높아



▲ 2016년 4월 22일 광상욱 오산시장과 함께 한 발대식 모습

오산시 스마트폰 재능기부단은 현재 오산시 무료컴퓨터 교육과정을 수료한 17명의 수료생들로 구성됐다. 배움의 만학도로 시작해 이제는 배움을 베푸는 재능기부자들로 성장한 샘(강사)들이다. 가르침도 배움 만큼 즐겁고 행복할까? 좋은 시책을 통해 받은 교육과정을 재능기부로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는 순수 재능기부 봉사단인 오산시 스마트폰 재능기부단을 만나보자.



▲ 강의 중인 김제영 단장

김제영 단장은 2016년 4월 발대식 이후 벌써 수료생만 1,500여명 이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 단장은 "무료 교육을 통해 받은 배움을 이웃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은 무엇보다 큰 즐거움입니다. 우리 재능기부단은 4년 전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외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라며 "순수 봉사단체로서 무료로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만큼 큼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재능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김보경(55)씨는 "무료 컴퓨터교육은 현재도 오산시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 재능기부는 세교종합복지관과 오산시청 두곳에서 주 2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시로부터 무료 교육 혜택을 받은 당사자에서 재능기부자로 그리

고는 2018년 오산시청 공채 공무원 합격을 통해 올해 스마트폰 재능기부단 운영지원 업무도 맡아 활동 중이다. 공채 공무원은 시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채용된다.

김 단장은 "2016년 오산에서 무료 컴퓨터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보자는 뜻을 모아 실시한 것이 스마트폰 무료 재능기부단이었습니다"라면서 "나눔과 봉사 목적입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재능기부를 하며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수료생들의 기뻐하는 표정'이었다고 말을 한다. 스마트폰 교육 과정은 2개월 8주 과정이다.

그는 "어르신들은 무료통화, 영상통화를 할 줄 알게 되면 그 기쁜 표정이 얼굴에 화사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자식들과 통화하게 되고, 무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합니다"며 "유튜브 활용법, 카톡으로 사진 보내는 법, 카카오톡 활용법 등을 가장 궁금해 하시고 그것들을 자세히 가르쳐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과정 속에는 금융 거래 기능과 사진편집기술도 있다. 이외 주소록 저장법, 클라우드 사용법, 경기도 버스 어플리케이션(앱), 카카오톡 활용법 등 어르신들에 요긴한 정보가 가득하다. 그래서일까. 재수강률도 높은 편이다.

김 단장은 "우리 재능기부단의 창단 목적은 배움과 나눔의 실천, 즉 정보 소외계층분들과 우리가 배운 지식을 나누는 것입니다"라면서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어르신분들의 스마트폰 도전을 응원합니다. 도전하시면 저희 오산 스마트폰 재능기부단이 도와드리겠습니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오산시 스마트폰 재능기부단에서는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김제영 단장(010-5614-8997)으로 하면 된다.

유지현 / 여송은 기자

칼럼

4차 산업혁명 물결을 타고 갈 새로운 인-간-존-중 시대!



이동연 대기자

무엇이 있어야 무엇답게 살아 갈 수 있을까? 이 땅에 4차 산업혁명 물결을 타고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일거리(4차 산업

첨단융합 집적 단지 등) 및 일자리에 시민 생계가 달려 있다.

국내 4차 산업 일거리,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 최첨단 제조업 부품 산업의 적층제조(3D/4D 프린팅) 기술의 가속화가 필요하다. 바로 기존 제조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는 4차 산업 혁신적인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는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기술의 디지털 가속화'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4D 프린팅 연구개발(R&D) 첨단산업 집적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4차 산업 첨단 융복합 집적 단지는 글로벌 디지털 4차 산업 밸류사장의 미래 일거리,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융합 플랫폼이 된다.

4차 산업 첨단융합 집적단지 사례: 첫 번째 사례로는 용인지역 예정인 반도체 집적 클러스터 단지(약 130만평)처럼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최첨단 AI 기반 4D 프린팅 첨단기술의 '적층제조(AM, Additive Manufacturing) 융복합 연구개발(R&D) 첨단산업 집적단지'를 구축해야만 하는 절박한 골든타임이다. 아직 3D 프린팅 기술이 상용화 꽃도 피기도 전에 최첨단 AI 기반 4D 프린팅 기술 첨단산업이라니, 좀 생소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 4D 프린팅 기술은 3D 프린터로 제작한 물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형태를 자가 변환(Self-Transformation)해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즉, 3D 프린팅을 통해 신소재 복합 물질을 형성하고, 자가 변환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삽입하는 기술이며, 어떤 조건에서 어떤 모양으로 변환 할지를 미리 정할 수 있고, 이 4D 프린팅은

온도와 시간 등과 같은 외부 특정 자극 요소에 의해 특성과 습성이 자가 조립(Self-Assembly) 할 수 있는 최첨단 제조 생산기술을 의미한다.

아직 이 분야는 글로벌 소수 선도국가들 초자도 이제 막 시작한 분야로 글로벌 혁신기술 및 기술융합이 포함되지 않은 최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미생분야이다. 다행히 대한민국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의 발 빠른 기술정책 리더쉽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 이병권), 광주과학기술원(GIST·차기 총장 김기선 선임)에서 4D프린팅 초기 연구가 활성화되어 상당한 실적이 있는데, KIST의 4D 프린팅으로 연기흡착, 화재(火魔) 막는 실시간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화재대응 시스템 기술 개발 연구 등이다.

그리고 이용구 광주과학기술원(GIST·차기 총장 김기선 선임) 기계공학부 교수팀은 4D 프린팅 형상기억 소재 구동 힘 측정 장비 개발이다. 이 장비는 4D 프린팅 창의 재료로 사용되는 형상기억합금(SMA)과 형상기억고분자(SMP) 두 소재의 실제 구동력을 측정할 수 있는 '헤파이스토스 1' 개발 제품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2018년도에 이 최첨단 미래 일거리, 일자리 먹거리인 4D 프린팅분야 연구자금이 끝났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물결을 타고 갈 새로운 인-간-존-중 시대에 현실 기반 미래 준비가 절박한 골든 타임인 이유는 과거의 일거리, 일자리를 창출한 2차산업 중화학공업, 3차산업 컴퓨터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군이 심화되는 차원이 전혀 다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변화 생성하는 융합 비전과 근본적인 혁신(Foundational Innovation)을 이끌고 갈 고급 인재양성 교육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동체 미래의 생존과 생계가 어려울 절박한 절실함 때문이다.

두번째 사례: 한 때 1960년도에 대한민국보다도 잘 살았던, 지금은 후발 개발도상국인 필리핀에서도 필리핀 과학기술부(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OST)가 3D프린팅(적층제조) 첨단 연구센터 구축(AMCen, Advanced Manufacturing Center)을

했다는 소식이다. 그럼, 왜 개발도상국인 필리핀 초자도 이런 3D 프린팅(적층제조) 첨단 연구센터를 구축했을까요? 이번에 구축한 국립 3D 프린팅(적층제조) 첨단 연구센터가 자국 시민들 삶의 질적 고도화, 일거리, 일자리 창출 역량 동력으로 활용, 강화 및 확대되길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지난 4년 전 2016년 새해 1월 중순경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란 주제 포럼에서 발표한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란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여파로 앞으로 2020년까지 5년 동안 선진 15개국에서 약 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 제기와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직업군과 개념 규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과 경고가 나왔다.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자율주행차량, 4D 프린팅/3D 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 기술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몰고 올 우리 일상 삶에 혁명적인 거대한 변화를 지칭하는 말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산업보고서는 디지털 탈바꿈(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의 질적 고도화로 일거리 및 일자리 창출의 혁명적 발상 및 4차 산업혁명물결에 걸 맞는 일반 시민들의 4차 산업의 재교육, 재훈련 교육에 대한 통찰력 있는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일과 일자리, 직업, 인구 저출산, 초고령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일터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 작업에 전략적 선택과 집중 투자를 해야 할 인적 자본의 질적 고도화 기반 구축에 대해 미래 창의 융합 인재양성 정책 및 4차산업 첨단융합 연구개발 집적단지를 지역에 유치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이다. 현재 지구촌 사회에 날로 심화되는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도 특히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난감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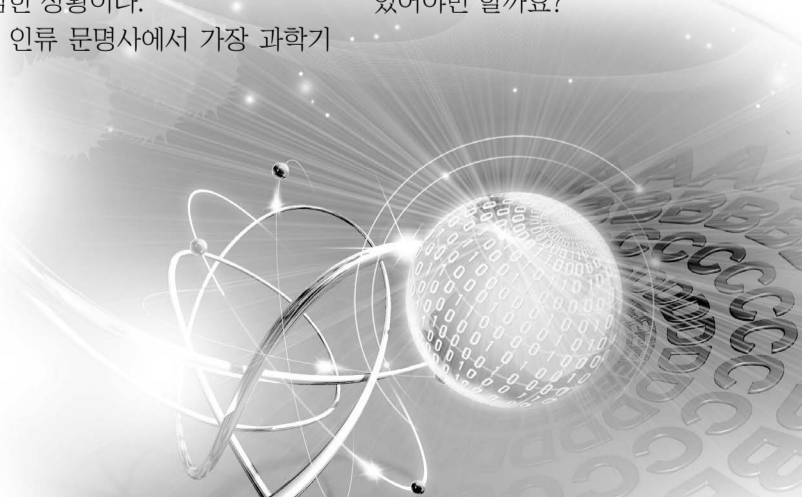
그리고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과학기

술 발전이 기하 급수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21세기이다. 이런 글로벌 핵심기술 및 기술융합 동향과 추세에 걸 맞는 4차 산업혁명물결을 타고 획기적인 선도 도약 국가로 나가야 할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일자리 사회적 안정망은 절대적으로 보완해야 할 핵심 과제이면서, 동시에 골든타임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도 고민한 흔적은 있지만 과거 정부 정책의 큰 그림에서 고민해야 할 상황들이 누적된 셈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에콜42(E'cole42)는 3無(강사, 교재, 학비 무료)인 전 세계 IT 인재의 전문 교육기관의 지원 조건은 IT 기본 교육을 이수한 18~30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현재 일터를 혁명적인 변화시키는 작업에 전략적 선택과 집중 투자로 4차 산업혁명물결을 타고 갈 새로운 인-간-존-중 시대, 인적 자본의 질적 고도화 기반 구축을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바로 프랑스의 에콜42(E'cole42)는 3無(강사, 교재, 학비 무료)인 제도 도입을 벤치 마킹하려고 적지 않은 국민세금(약 350억)으로 운영할 이노베이션아카데미(현재 연령 검토 중) 환영할 일이지만, 과거의 제도 방식처럼 운영이 되지 않을까 아주 걱정이 된다. 그 이유는 과거 정부 고용정책에서부터 이번 정부 일자리 정책까지 또 안일하게 청소년-청년 연령 상한선을 39세까지 나이로 정한다면, 창업 성공 연령대가 평균 41세대라고 국내외 논문 발표도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베이비 부머 700만명이 쏟아져 나오는 장년층에 대한 일거리, 일자리 정책은 어디서 나오며, 누가 할까요? 4차 산업혁명물결을 타고 갈 새로운 인-간-존-중 시대에 시민들이 하늘만 바라 보고 있어야만 할까요?

이동연 대기자 약력

- 현, 특허청 IP지식재산 교수요원
- 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업멘토단 전문위원
- 현, 한국3D프린팅협회 대표자문위원
-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의 과학기술인재 전문가 진로 컨설턴트 심사위원
- 2016~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의 과학기술인재 전문가, 진로컨설턴트(학교로 찾아가는 드림톡콘서트 강연자)
- 2017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의 국가 사업프로젝트-사다리 프로젝트 전문가멘토-지역차이로 소외된 과학적성 인재의 이공계 진로 진출 지원사업



경기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17명 형사입건

광고, 판교 등 중심상가 10곳, 523점 6억3천만 원 상당 압수

짝퉁 제품을 비밀창고까지 마련해 놓고 팔거나 병행수입품으로 속여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영수)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원시 중심상가, 성남시 판교 주변 등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523점 6억3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

이번 수사는 특사경 소속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5개반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진행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가방 228점, 의류 103점, 지갑 76점, 귀걸이 27점, 스카프 11점, 기타 78점이었으며 상표별로는 루이비통이 140점으로 가장 많았고 구찌, 샤넬, 버버리도 각각 109

점, 84점, 46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 A업소는 매장과 비밀통로로 연결된 비밀창고를 갖추고 정품가격 400만 원 상당의 짝퉁 샤넬 가방과 정품가격 150만 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가방 등 21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업소는 짝퉁제품을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수원시 광고지구의 C업소는 중국에서



▲ 경기도수사에 적발된 짝퉁제품

제조한 위조 상품에 유명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했으며, 고양시 일산의 D업소는 정품가격 200만 원 상당의 짝퉁 버버리 의류 제품을 100만 원에 판매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7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현섭 기자

‘수술실 CCTV’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확대 운영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를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5개 병원으로 확대한다.

도는 18일 이같이 밝히고 이달 말까지 나머지 병원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보안성 검토와 시범 운영을 거쳐 5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민선7기 핵심 보건정책의 하나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에 이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앞둔 지난해 10월12일 공개토론회에서 의사회가 강력하게 반대여사를 밝혔다.

당시 의사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해서 환자와 의사 간 상호 불신을 조장,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의료행위를 유발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비자격자 수술행위 방지, 의료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찬성했다.

도 관계자는 "처음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갈수록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진다"며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와 각종 의료사고 방지

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쥬케이스 탯리서치가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서 도민 93%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91%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안성병원에서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한 건수도 지난해 10월 76건(전체 144건)에서 올해 2월 523건(834건)으로 늘었다. 촬영 동의 비율은 10%포인트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우선 설치 방안과 의료법 개정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안근학 기자



▲ 안성병원에서 운영하는 CCTV 영상 모습.

▶▶▶ 2면에서 이어집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도는 '2차 경기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특별대책 시행계획'과 함께 '2차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해 2022년까지 2017년 농도 대비 33% 저감(18 $\mu\text{g}/\text{m}^3$)을 개선 목표로 총 1조7,67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탈원전 백지화는 절대 안돼? 국정에 정책기조 자존심 있을 수 없어

최근 국회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범주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사태 선포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미세먼지 정책에 탈(脫) 원전 정책기조가 모순된다는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소를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원자력발전은 미세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2조 9,963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나 원자력 관련 예산은 4,667억 원에 그쳤다. 또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원전 가동률도 급감해 지난해 원전 이용률은 65.9%로 1981년(56.3%) 이후 가장 낮았다. 문제는 원전을 줄인 만큼 화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늘었다. 환

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5사의 화석에너지 발전량은 27만6,395GWh로, 2년 전 대비 3.8%(1만208GWh)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전5사의 온실가스 배출량(2억1,083만 톤)은 2년 전 대비 737만 톤 증가했다.

결국 탈원전에 따른 공백을 석탄이나 LNG 발전이 메우며 미세먼지 발생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아직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탈원전에 의한 에너지 부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폐해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이용률이 3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원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싼 LNG와 석탄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이 2조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 혈세,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진국들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에너지를 가스과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에너지 효율을 올리면서 대기오염을 줄였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정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다. 에너지 전환을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우 선진국 주요 도시보다 세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미세먼지 재앙을 이겨내자.

김현섭/박용우/곽재근 기자

“불법 대부업자는 A씨에게 부당이자,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면 부당이자 환수는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는 2014년 판결이 있다.

A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길거리 명함 대출광고를 보고 대부업자에게 연락해 자신 명의 체크카드를 주는 조건으로 450만원을 빌렸다. 대부업자는 A씨가 자신의 계좌에 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뽑아가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시작부터 불법인 셈이다. A씨는 하루 6만원씩 갚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지만 연이율이 최대 257%나 되는 불법 이자율이었다.

450만원은 이후 700만원, 1,300만원, 1,800만원으로 늘어났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추가 대출을 받아 이자부터

갚아야 했다.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은 1년 4개월 새 총 1억원이 넘어섰다. A씨가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자 대부업자의 협박이 시작됐다.

협박에 시달리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가 대부업자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을 도왔고, 업자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2014년 당시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연 39%였는데, 연 최고 257%의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24%이다. 대부업자가 형사 처분을 받자 A씨는 바로 부당하게 뜯어간 이자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대부업자가 당시 대부

업 최고 이자율인 39%를 넘겨 초과로 받은 이자를 3,190만원이라고 보고, 이를 반환할 것과 협박 등 불법 추심으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대부업자의 불복 재판 2심에서는 대부업자가 A씨 체크카드에서 돈을 빼간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대부업자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 소송을 도운 유근성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채권자가 대부업자가 아니라더라도 적용 법률과 최고 이자율이 다를 뿐 초과 이자에 대해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번이다. 공단 내 '혼자하는



▲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는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4(031-213-0773)에 위치해 있다.

소송 법률지원센터'에서는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법률서식·법률상담사례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섭 기자

낙태죄 위헌 문제, 다시 국민 관심사로 떠올라

인권위 '낙태죄 위헌' 헌재에 의견서 제출

낙태죄 처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헌재는 빠르면 4월 경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인권위가 17일 헌재에 낸 의견서에는 "낙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헌재는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결론

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출산은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낙태되는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한다"며 "(여성이) 경제적·사회적 사안에 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개인의 임신을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낙태 또한 당사자인 여성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형법에서 예외없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면서 모자보건법상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점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낙태를 선택한 여성이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종교계에선 여전히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곽재근 기자

현대차 마력 높은 LPG엔진 1t 트럭 상용화 추진

최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무려 37년 만에 누구나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발 맞춰 현대자동차는 1톤 트럭을 LPG 직접분사엔진으로 대체하는 기술 개발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톤 트럭은 '서민의 발'로 불릴 만큼 영세 서민의 생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LPG 차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또한 현대차는 출력 성능을 개선해 1톤 상용차용 2.5ℓ 경유엔진과 같은 수준의 최대토크를 갖추게 했다. 이와같이 차세대 LPG 트럭으로 대체해 미세먼지와 NOx 저감에 기여하고 중앙아시아 등 가스산지국으로 수출 확대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LPG자동차 규제완화법(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은 2016년부터 발의된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들어 있었다.

그동안 LPG 개정안에 소극적이었던 국회에서 빠른 속도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연일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매연 절감 효과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진철 기자

경기도,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 추진

경기도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도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적

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런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용하도록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뒤 일정 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으로 내는 일정 금액이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10으로 담보책임기간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의무적이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다.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 처리에 소홀한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이 유다.

이 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시·군이 합의한 도·시·군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가 처음 도입했다.

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최근 주거 시설로 인식되고 사용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하다"면서 "공동협력과제인 만큼 시·군과 적극 협의해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



▲ 경기도청 전경

화성시 인구, 올해 말 90만 넘을 수 있나?

봉담 효행지구 등 대단지 개발로 기대감 상승



▲ 효행지구 항공 사진.

화성시 인구 증가율이 경기도 평균 증가율 1.68%의 6배에 이르는 10.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인구는 2019년 1월 기준 76만 510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빠르면 올해 안에 인구수 90만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통호재 집중으로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화성시 봉담, 비봉에 대단지

아파트 신축 현장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어 이곳이 향후 인구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다양한 개발 호재를 품고 있고 최근 다양한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띠고 있다.

여기에 낮은 예금 금리와 최근 급락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토지시장으로 흘러들

어오며 토지거래량이 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7월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된 데 이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봉담~송산구간 공사가 착공됐으며 수인선 연장선과 인천발 KTX 개통 예정지로 떠오르면서 화성시 봉담읍과 매송면지역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만 천 여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로 화성 봉담읍 수영리 3의 6 일원 92만1,242㎡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562 일원 46만 7천253㎡ 등 138만8천495㎡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조3,800억 원이 투입되고, 1만1,749가구 규모의 주거용지와 공원, 녹지, 공공청사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김현섭 기자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 용인과 화성 집중단속 계획

경기 용인시와 화성시 등 대규모 개발 및 예정 부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노린 위장전입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이 투기 차단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용인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인 원삼면 일대의 '뺏다방'과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 및 무허가 여부 등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원삼면 일대에는 약 448만㎡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되면서 중개업소가 40여개로 최근 두배 이상 늘었다.

이 일대는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확정 전부터 외지인의 발길이 늘고 등 토지 거래가 급증해 투기 의혹이 제기돼 왔다. 부동산 가격도 ㎡당 40만~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뛰었다.

용인시는 중개업소 단속반을 구성하고 위법행위를 한 중개업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우정읍 원안리 일대에 보상



▲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용인시 원삼면 일대

을 노린 소규모 단독주택인 일명 '벌집'이 난립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이 확정되면 90웨클(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이상 소음 피해 지역의 건축물과 토지를 수원시가 매입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벌집이 지어지고

있다.

현재 시는 80여 가구가 소음 피해 보상을 노리고 지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12월 말까지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계획이다.

김현섭 기자

화성인이 놀랄 봉담의 23층 랜드마크 주거용 임대공급 절대부족!



트리플 학세권
원더풀 생활권

장안대, 협성대, 수원대와 나란히!
원스톱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이!

2021년3월 입주예정



장안대학교 재학생 8,831명
산업단지 종사자 15,000명
협성대학교 재학생 5,880명
봉담읍 1인가구 7,600명
수원대학교 재학생 13,757명
인근대학교 재학생 28,000명
봉담읍 인구 20~50대 61.1%

원스톱 수요
인근 장안대학교, 협성대학교, 수원대로
통하는 풍부한 대학생 임대수요 및
시립도서관 인접

원스톱 생활
봉담CGV(준공예정), 한마을 마트,
롯데슈퍼, 봉담읍사무소 등
생활편의시설 위치

원스톱 교통
약 150m 앞 버스정류장, 봉담IC,
수인선연장선봉담역(예정)

원스톱 투자
인근산업단지 근로자와 대학생
임대 수요까지 흡수 할 수 있는
브랜드와 성공투자상품

- 취득세 면제 전용60㎡이하
- LTV40%규제 해당없음
- 재산세 면제 전용40㎡이하
- 분양가10% 투자OK
- 전매제한 없음
- 중도금 무이자
- 주택미포함 20㎡이하
- 철통보안 164대 CCTV
- 부가세 면세, 비과세
- 지상 주차장 5층까지

코아루 앞에
투자의 즐거움이
줄을 잇다



호행지구 8만평
문화예술타운, 공원조성

봉담 KOAROO 카보드 ZOOM 시티 코아루

대표상담전화

031-893-0572

*부동산개발업자: (주)한국토지신탁, 서울시080010호 ※주영업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공급대상물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26-11번지 일원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용도: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부대근생시설 ※규모: 지하 4층, 지상 23층 1개동 ※대지면적: 1,061㎡ ※건축면적 15,278㎡ ※용적률: 793.45% ※건폐율: 76.03% ※건축허가(사업승인번호): 2018-건축과-신축허가-377 ※시행사: (주)한국토지신탁 ※시공사: 대창(인)주 ※위탁사: 광덕(인)주 ※분양대행: ㈜에스엔피 ※분양대금관리방법: (주)한국토지신탁 지체관리 ※시업일정: 2019년 1월 26일 착공 / 2019년 2월 분양예정 / 2021년 3월 준공예정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100% 매입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음 ※잔금 완납시 지분등기 ※상기 사업개요는 최종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 및 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홍보물의 사진 및 일러스트, CG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로서 실제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색상, 입면, 디자인 패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표시된 거리표기는 네이버 지도기준 직선거리이며, 소요시간은 네이버 지도검색결과를 오후 2시, 실시간 교통정보 포함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본 홍보물상의 개발계획, 교통계획 등은 해당사업 관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에 따라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본 홍보물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제재물에 표기되지 않은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사항) 등은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하시어 담당자 및 상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칼럼]

일부 세력 '사법부 흔들기' 국정에 전혀 도움 안돼



김현섭 편집국장

15일 청와대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27만여 건 국민청원에 "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름 끝에 승객이 던진 동전에 맞고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유족이 "승객을 엄벌에 처해달라"며 제기한 청원 등에도 "수사나 법원 판결과 관련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3권분립에 입각한 원칙적 답변이다. 그간 비대해진 행정부 권력 탓에 잇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3권분립 국가이다.

3권 분립이란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각각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다시 말해 이 중 한가지가 제 역할을 못하면 국가 혼란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작금의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일부 여론이 그렇다. 이날 청와대는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잇고 지낸 것은 이뿐만이 아닌 듯 싶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징역 2년으로 법정구속한 성장호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판사이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 조운선 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들을 구속시킨 인물이다. 당시 촛불 민심은 성 판사

게 계속 도정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를 되새겨볼 이유도 된다. 향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도 자칫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지사의 경우, 오는 19일 2심 첫 공판에서 보석 신청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범죄 행위로 구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을 배워왔다. 그렇기에 더욱 엄정한 3권 분립이 필요하다. 박근혜 파면은 헌법재판부가 국민의 촛불 민심을 받아들여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탄핵 사안을 법리적으로 판결한 것이다. 또한 고위 판검사 등 2급 이상 고위공직자 감시와 탄핵, 파면은 공수처 신설 등 법제정을 통해 가능하다. 정치인들을 포함한 일부 세력들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 섰다. 심히 우려스러운 현실 정치이다.

대한민국은 3권 분립 국가, 상호 견제와 균형 통해 국가 발전 구속 중인 선출직 공무원에게 계속 도정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 고위공직자 감시와 탄핵, 파면은 공수처 신설 등 법제정 해야

의 판결에 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박근혜 파면을 결정한 현재 판결 역시 사법부의 독립 속에 이루어진 판결이었다.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 가당키나 했을까?

김경수 경남지사를 보자. 드루킹 댓글 관련 2년형으로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중대 범죄 행위자이다. 여론정치라는 작금의 정치판에 댓글 등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이다. 이날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게다가 최근에 보석신청을 한 이유가 도정 공백 등이라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1심 선고로 구속 중인 선출직 공무원에

속 수감 중인 선출직 단체장(공무원)에게 급여를 꼬박꼬박 지불하는 현 제도가 타당한가? 1심 2심을 무시 혹은 경시하고 대법원 최종 상고심의 결정만이 범죄 행위 유무에 대한 법의 잣대인가? 대법원 유죄 판결이 되면 그간의 급여 수령액 환수는 법 제정을 통해 가능한가? 이 물음들은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법제정을 통해 가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번 27만여건의 청원은 입법부에 했어야 한다.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



기독 칼럼

달란트 비유와 게으르고 악한 종

와우리교회
김상균 장로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죄악일까요?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에게 그 주인이 돌아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보자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게으른 종의 이유가 '나태함의 핑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달란트는 지금 화폐 가치로 약 20억원에 상당합니다. 달란트를 달리 각 사람이 가진 '특별한 재능' 혹은 '남다른 재주'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30절'에서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며 자기 소유를 3명의 종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아마도 "재산 관리를 잘 해 줄 것"을 당부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 온 주인

이 결산을 볼 때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2달란트는 4달란트로 각각 그 이윤을 남겼습니다. 주인은 이 두명의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둔 게으른 종은 이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하며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 줍니다. 그러자 주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면서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게 하고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하

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이제 역대하 2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시라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한 달란트 비유와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달란트의 게으른 종은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억이라는 거금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은 그의 재능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종은 그 재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재능은 세월을 따라 숙련되거나 소멸됩니다. 전도의 재능, 축재(蓄財)의 재능, 예술적 재능, 봉사의 재능 등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대한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주어진 사회적 위치에 맞는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남겼다'는 표현은 재능을 최대한 확장 발전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받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어진 재능을 발전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발전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게으름과 나태함은 그것을 방해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게으른 생활은 현재의 안주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의무와 책임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재능(달란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자기 계발을 통해 교회 각처에서 섬기고, 나누며,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추천 도서

허금행 수필집, '남편이 천사의 말을 한다'

소소한 이야기와 그리움, 일상 속 작지만 깊은 성찰 담아

시인이자 수필가인 허금행 작가의 신간 '남편이 천사의 말을 한다(경진 출판)가 독자들의 좋은 호응 속에 꾸준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허 작가는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 이화여고, 이화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1973년 결혼과 함께 미국 이민길에 올라 46년간 이민생활을 하고 있다.

시문학과 수필문학으로 등단한 허 작가는 시와 그림을 좋아하고 산부인과 의사인 남편과 함께 네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켰다. 현재 미국 뉴욕의 '드림로즈 갤러리' 관장으로 지내고 있다.

'남편이 천사의 말을 한다'는 은퇴 후 자녀들의 페이스북 권유를 받아들여 수년간 폐친들과 소통하며 나누었던 글들을 책으로 엮어냈다. 5장 75편의 글들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와 그리움, 일상 속 작지만 깊은 성찰로 채워져 있다.

이민 생활에서의 힘들과 자녀들의 이야기, 그리고 작가가 청각장애로 인해 겪는 불편함,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헤어짐, 그리고 성장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1장 기억과 추억의 차이 ▲2장 선글라스를 쓰고 보는 세상 ▲3장 사랑의 시를 읽으세요 ▲4장 빨간 우체통에서 배달된 편지를 기다린다 ▲5장 남편이 천사의 말을 한다.

책 속의 허 작가는 인위적인 것보다는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좋아하며, 호박꽃으로 튀김을 만들어 먹고, 손님들에게 집밥을 먹이고픈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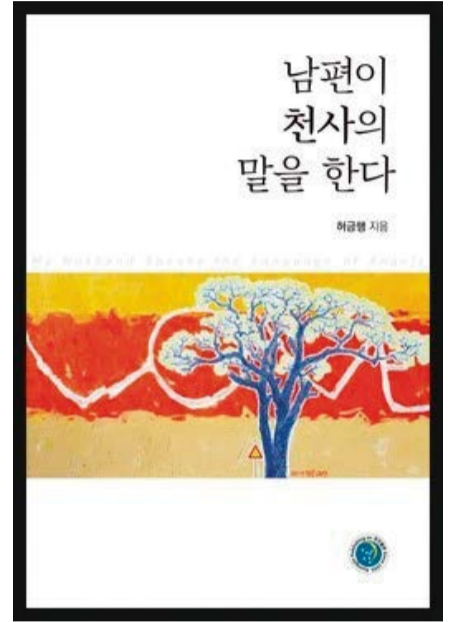
특히 시는 소리 내어 읽어야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그녀는 "내가 살아오면서 잘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둘만 남아 잘 기르자는 구호를 무시하고 넷을 낳은 것이다. 이 세상에 나를 엄마라고 부

르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많이 하고."라고 시작한 남편의 말 한 마디에, 작가는 "남편이 천사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글을 쓰며, 남편에게는 "당신이 여위어 가는군요."라는 표현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인다.

허 작가는 "나는 나의 글에서, 삶의 어두운 부분을 지우개로 지워 흐리게 만들기를 희망한다.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동 트기 전의 새벽빛이 되기를 꿈꾼다. 그리하여 나의 글들이 화해의 손길이 되고, 침묵이 골 깊은 하루를 왈라지떨하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작가 서문에 밝혔듯이 새벽빛과 화해, 침묵 그리고 왈라지떨한 삶의 일상을 꿈꾸고 있다.

여송은 기자



▲ 시인이자 수필가인 허금행 작가가 신간 수필집 '남편이 천사의 말을 한다'를 출간했다.

비듬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천연치료제

"비듬은 두피 염증, 예방법만 알아도 건강한 모발 가능"

비듬은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머리도 예외는 없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 속에서 비듬량이 증가한다. 또 비듬은 한 번 생기면 꾸준히 관리해야 재발하지 않는다. 비듬을 방지하면 두피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탈모로까지 이어진다. 비듬의 원인과 올바른 예방법 등을 알아보자.



▲ 예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뜨거운 물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약간 차갑게 느껴질 정도의 물로 꼼꼼하게 머리를 감는게 중요하다. 손톱을 세워서 긁지 말고, 손마디를 이용해 구석구석 감아야 한다. 또 샴푸가 묻은 채로 두피 마사지를 해주면 효과가 좋다. 머리를 행군 뒤 녹차 우린 물로 머리를 다시 행군면 녹차의 탄닌 성분이 노폐물을 제거하고 두피 모공을 조여줘 효과가 좋다.

둘째 햇빛은 비듬균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 없이 햇볕에 너무 많은 시간이 노출되면 피부노화, 피부암 발생 등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셋째 드라이 할 땐 찬바람으로 모발 뿌리까지 꼼꼼히 말려줘야 한다. 완벽하게 마르지 않은 상태인 두피는 습하기 때문에 박테리아균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준다. 저녁에 머리를

감고 곧바로 잠을 자는 것도 비듬 예방에 좋지 않은 행동이다. 물방울이 느껴질 만큼 젖어있는 머리라면 머리를 묶거나 모자를 쓰는 것은 피해야 한다.

▲ 천연 비듬 치료제로는 녹차와 알로에, 베이킹소다와 우유 등이 있다.

녹차는 녹차잎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모공을 조여주고 플보노이드 성분은 더러움을 정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머리를 감은 후 녹차잎을 우린 물로 마사지를 하고 행구면 비듬이 없어지고 가려움증, 모발 건조를 해결할 수 있다. 알로에는 혈액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고, 모근을 튼튼하게 해 비듬과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 흰머리, 새치 등도 방지할 수 있다.

베이킹소다의 알카리 성분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 물과 베이킹소다를 섞은 뒤 두피 마사지를 하거나 샴푸 후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 문질러 주면 2~3주 후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우유의 산성 성분은 두피의 각질과 피지를 제거해준다. 우유의 수분과 단백질이 각질을 약화시켜 비듬에 효과적이다. 우유 반 컵 정도를 미지근한 온도로 데워 화장 솜에 묻혀 머리를 마사지하고 10분 정도 방치한 뒤 깨끗이 씻어내면 된다.

여송은 기자

함께 읽는 詩

[함께 읽는 詩] 이번 호는 이병률 시인의 시집 '찬란(2017년, 문학과지성사)'에서 '밀줄'을 함께 읽기로 했습니다. 이병률 시인은 199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습니다.

밀 줄

이병률

역전 식당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여자가 합석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눈 돌 곳 없어 신문을
가져다 들추었습니다

시킨 밥이 나란히 각자 앞에 놓이고
종업원은 동행인 줄 알았는지 반찬을
한 벌만 가져다주었습니다

벌 한 마리 안으로 들어오려는 건지
도리가 없는 건지 창문 망에 자꾸
부딪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도 그릇에 불안한 비
비는 소리를 냈을까요
새로 들여놓은 가구처럼 서름서름
마음을 설쳤을까요

배를 채우는 일은
뜻밖의 밀줄들을 지우는 일이었지만

식사를 마칠 때까지
여자도 나도 반찬 그릇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 참석

“더 나은 미래교육 위해 도교육청·지자체 힘 모아야 할 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박문석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등 5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5개 기관 대표는 이날 경기교육발전협의회 합의문에 서명하고 선도적인 교육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학생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학교도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의회,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2019년에는 마을학교 형태로 만든



꿈의학교가 2,000개가 됐으니 한 단계 더 나아가 미래교육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학교 공간, 교육과

정, 교과서, 교육체제, 학교운동을 총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니 경기도의 어려운 교육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 교육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협치 기구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여한다.

안근학 기자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권익향상과 처우개선 위한 정책 발굴·자문 기대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가 지난 15일 시의회 세미나실 발족식을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첫발을 뒀다.

권관호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을 위원장으로 사회복지기관장·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원시의원 등 15명으로 이뤄진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강화·경력관리 지원 등 처우개선 정책을 발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인권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올 연말까지 처우개선위원회와 함께 표준 급여 가이드라인과 처우 개선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시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

를 의뢰했다. 최광열 사회복지과장은 “처우개선위원회가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과 인권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시에는 사회복지, 노인·장애 인복지, 보육아동복지 등 8개 분야 171개소의 복지시설에 130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3년부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보수체계 개선,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마련, 특수지 근무수당 신설, 건강검진비 지원, 상해보험·보수교육비 지원, 모범 종사자 해외연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임승수 기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아드림 장학금’ 전달 받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8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기아드림 장학금’ 7천3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기아드림 장학금’은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을 지원해 지역사회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기금이다.

전달받은 장학금은 용인대학교와 한광고등학교, 장안여자중학교, 우정초등학교 등 도내 10개 학교를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복지관 및 봉사단체에 무료 급식봉사를

를 위한 음식 포장기계 지원을 비롯해 저소득 범죄피해자 지원, 교통약자 물품 지원, 김장행사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학봉 경기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이처럼 지역사회와 기업이 선순환하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



송한준 의장, 이금로 수원고검장과 상호협력 약속

18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차장검사 접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 1)이 18일 이금로 수원고등검찰청 초대 검사장을 접견하고 경기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날 송한준 의장은 의장 접견실에서 취임인사 차 방문한 이금로 수원고검장과 장영수 수원고검 차장검사를 만나 30여 분 간 면담했다. 접견에는 신상현 의회사무처장과 전진석 총무담당관이 배석했다.

이금로 수원고검장은 “수원고검은 도민의 성원과 경기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출범한 도민 권리구제의 마지막 장소”라며 “수원고검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한준 의장은 “도민과 의회의 소리를 들으며 정책을 펼치겠다는 수원고검의 의지에 감사드린다”며 “142명 의원이 현장을 누비며 찾은 답을 고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송한준 의장과 이금로 수원고검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의회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역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수원고검이 함께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업무를 개시한 수원고등검찰청은 서울과 부산, 대전 등에 이은 전국 6번째 고검으로,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검 산하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청의 항고 사건, 항소 사건 공

소유지, 국가·행정소송 수행 등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김주현 수원고등법원 초대 법원장이 취임인사 차 경기도의회를 내방했다.

김현섭 기자

오산시 청년 자립을 위한 'The 청년학교' 사업 론칭

첫 과정으로 미래직업 1인 크리에이터 교육과정 개설

“끈기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해요. 꾸준히 하는 유튜브가 되세요.”

유튜브의 대표적 스타 1인 크리에이터인 ‘디바제시카’가 오산에 왔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3월 13일 중앙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오산청년공감 토크’를 열고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사업 ‘The 청년학교’를 소개하면서 스타 1인 크리에이터 디바제시카를 초빙해 ‘크리에이터가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크리에이터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아프리카TV 같은 플랫폼에 채널을 만들고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소통하는 이들을 말하며, 이들이 만든 미디어 콘텐츠는 젊은 세대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강을 진행한 디바제시카는 자체 콘텐츠로 인터넷 조회수가 2억뷰를 넘고 구독자만 165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디바제시카는 특강에서는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공유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현섭 기자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개관,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 지원

사무실·세미나실·메이커스페이스 등 지원시설 갖춰

로봇·드론·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원시 기업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수원시는 18일 권선구 고색동 수원 일반산업단지 수원벤처밸리Ⅱ 6층에서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기업지원센터는 수원시 신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체면적 9243㎡ 규모로 중소벤처기업 사무실(24개), 1인 창업기업 사무실(13개), 회의실(1개), 세미나실(2개), 메이커스페이스(1개) 등 다양 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아이디어를 바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첨단장비가 갖춰진 공간을 말한다. 기업지원센터 내 메이커스페이스에는 3D프린터, 레이저 가공기 등 59개 장비가 마련돼 있다. 입주기업들은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협업으로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다.

현재 기업지원센터에는 (사)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시 산업단지지원팀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15개), 1인 창업기업(3개) 등이 입주해있다. 중소벤처기업은 최대 5년, 1인 창업기업은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입주기업이 직면하는 경영·기술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벤처기업협회 등과 연계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개관식 축사에서

“개인,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기업을 꾸려가기는 쉽지 않다”면서 “기업지원센터가 수원시 경제를 이끌어갈 중소·벤처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센터 내 메이커스페이스에서 만든 작은 아이디어가 수원시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도시와 기업이 상생하는 ‘경제활력 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승수 기자

아직도, 나가서 버리시나요?



대한민국 NO.1 싱크퓨어
 ※싱크대 아래 설치제품

딱! 14 일간 계약금 없이 무료체험

제품은 **최고급형/고급형/프리미엄형**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Why? 선진국 주방에는 음식물분쇄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집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하수는 오수관을 타고 하수 종말처리장을 통해 100% 정화 후 하천으로 방류됨으로써 여러 단계를 통해 처리되는 현행 방법보다 자원화율이 높고 위생적이며 환경적입니다.

환경부 및 서울시, 남양주, 여주 등의 100% 직배출 시범사업 결과

- (2013년도 음식물종량제 시행에 따른 디스포저 도입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 인용 장소:국회회의실)
- 1. 하수관로 맨홀등의 퇴적이 거의 없음
 - 2. 오수발생량 증가 거의 없음
 - 3. 유입부하량 증가 거의 없음
 - 4. 황화물 농도 변화 거의 없음
 - 5. 하수처리장 문제 거의 없음
 - 6. 메탄가스 생성 등으로 자원화 가능
- ※특히 여주 시범 사업은 주민 66%가 사용함에도 문제발생이 없었음.

HIGH Technology
 대한민국 NO.1
싱크퓨어 음식물처리기

HSPM 모터 본 제품은 고객과실을 포함 10년 동안 모터부품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1년 이후 출장비 및 기술료는 발생

음식물분쇄처리기 같같이 싱크퓨어
 031-665-0970

10초면 간단하게 사용하는 싱크퓨어



[새집의 완성은 싱크퓨어]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싱크퓨어"는 어떤 사이트, 어떤제품의 성능과 가격을 상세비교 분석해보셔도 앞서가는 특허기술의 (4중,고분쇄테크놀로지) 채택, 국내최초 1HP(마력)의 10년 무상보증으로 빛나는 미국 U.S.A.에너하임사 영구자석 모터장착, 국내최고의 4,600RPM(분당회전수, 고강성 초강력하며, 3열고분쇄강판,해바라기칼날, 완벽한 3중방수시스템 등, 타사 제품대비 약3배 이상의 성능과 내구성으로 이미 소비자 선호도, 시장점유율 1위의 반영구적 제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싱크퓨어 음식물 분쇄처리기"는 외국 음식에 비해 딱딱하고 섬유질이 많은 우리나라 음식물에 가장 최적화되어 닭뼈까지 완벽하게 분쇄처리하는 대한민국 NO.1 음식물분쇄처리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입 및 설치 문의
음식물분쇄처리기 같같이 싱크퓨어
031-665-0970
 www.싱크퓨어경기센터.com

■ 전국 어디서나 가장 빠르고 정확한 A/S

- 11 여년간 최장수업체
- 11 여년 동안 대표자 상호 정정 없음
- 전국 200여개 대리점 개설
- 중소기업청 공동 A/S 제휴
- HSPM모터 10년 품질보증

S/W H/W 3D프린팅융합 전문가교육과정 모집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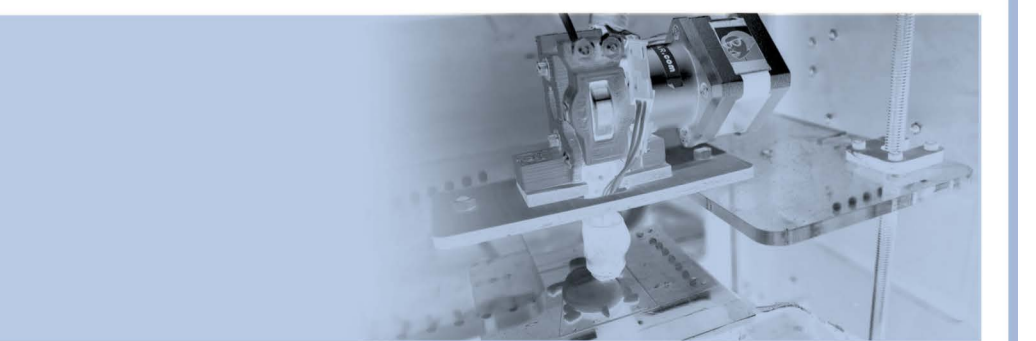
3D프린팅 산업협회 민간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수료후 상담을 통해서 자유학년제 강사 진로특강 전문강사 방과후교사 취업연계 3D프린팅융합전문가 CreaCher 양성

구분	개강일	시간	-
주말반	5월 11일	토,일 (오전,오후반)	1일6시간/총12회69시간(중강일만3시간)
오전반	-	토,일 (9:00-15:00)	1일6시간
오후반	-	토일 (15:30-21:30)	1일6시간

★ 각반 정원은 12명(정원 미달시 날자변경 및 개강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 교육비 85만원

프로그램안내

- ▶ 일시: 2019년 5월 11일 1일6시간 운영
- ▶ 교육대상: 3D프린팅 교육에 관심있는 누구나
- ▶ 비용: 85만원
- ▶ 교육장소: 평택시 경기대로1511 302호
- ▶ 교육실시기관: **the TRUE VINE / 사람과뉴스**
- ▶ 교육신청: 전화접수(선착순 마감) 031-681-7117



평택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개최

“삶의 질 향상과 품격 있는 국제안전도시 역량 발휘”



평택시는 18일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정장선 시장, 루파이(Lu Pai)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심사위원장, 시·도의회 의원, 안전도시 위원, 각급 안전단체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평택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사, 축사, 축하영상메시지 상영, 국제안전도시 공인협정서 서명 및 공인패·휘장 전달, 공인 선포 등의 순으

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2015년 안전도시 조례 제정, 안전도시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지역 사회 안전진단을 통한 손상율과 시민 안전 요구도 조사, 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 근거한 다양한 안전 증진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해 공인센터로부터 2차례의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승인 받았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의 모든 행정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시민 중심의 새로운 평택으로의 방향성을 갖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품격 있는 국제안전도시 평택의 역량을 발휘 하겠다”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평택시가 국제안전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지현 기자

2019년도 노동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개최

21~22일 1박2일 교육을 시작으로 12월12일까지 진행



▲ 경기지역 노사관계전문가 최고과정인 21~22일 1박2일 일정을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3시간씩 120시간 교육이 실시된다.

경기지역 노사관계전문가 최고과정인 국립 한경대학교(총장 임태희) 창의 인재개발원 주관으로 21~22일 1박2일간 경기도교직원 안성수덕원에서 합숙 교육을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3시간씩 120시간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경기지역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노동단체 대표, 사용자단체 임원, 경기도 또는 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30명을 대상으로 차별 해소, 복수노조 등 노동환경 변화와 갈등 해소를 통한 고용창출 등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 교육을 통해 경기지역 노사관계전문가 30명을 양성해 경기지역 노사갈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민정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조성에 그 목표가 있다.

한경대학교 노동복지학과 류호상 교수는 “국내외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현장의 노사관계를 알아보고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1박2일 집체교육에서는 주)360미디어 구해원 대표가 4차 산업혁명분야인 VR 독도콘텐츠 체험 재능교육기부를 지원해서 눈길을 끌었다.

참석한 수강생들은 노동교육전문가 과정에 4차 산업혁명이 접목되는 것이 신선하고 뜻 깊은 강의였었다며 4차 산업 관련 직접 체험을 통해서 노동교육의 미래를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 교수진들도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 교육프로그램을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노동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된다.

박지호 기자

‘제19회 화성 시민의 날 기념행사’ 성료

서철모, “모든 시민이 행복한 바른 성장 이끌 것”

‘제19회 화성 시민의 날 기념식’이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화성시는 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19만명, 예산 2천억 원이었으나 현재 인구 77만 명, 예산 3조원을 넘어섰으며 올 해 말이나 내년 초 90만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된다.

이날 기념식은 동탄 예당고등학교 박수진 학생 사회로 진행됐으며, 축하공연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구성된 문화예술동아리 ‘한울’의 난타가 신명나게 펼쳐졌다.

또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으로 순국한 독립운동가 김흥렬 선생의 후손 김연우씨가 시민헌장을 낭독했다.

이날 서철모 화성시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공정한 기회의 보장,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으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바른 성장을 이끌 것”이라면서 “이제는 화려한 성장이 아닌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 독립운동가 김흥렬 선생의 후손 김연우씨가 화성시 시민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도입 등 ‘생활밀착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면서 “지역 특색을 살리는 맞춤형 발전전략으로 화성 국제테마파크,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 매항리와 화성습지의 보호 등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시장은 “3.1운동에서 보여

준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애민 정신을 자부심과 긍지로 되살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것”이라며 “우리 시는 전국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화성시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송은 기자

한국토지신탁

실투자금 4천만원! 3채 계약 가능!

(계약금 기준)

봉담 코아루 카보드 ZOOM시티

장안대
협성대
수원대

와 나란히!

원스톱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이!

GRAND
OPEN



스케일이 다른 23층 랜드마크 소형 투자상품! 봉담 코아루 카보드 ZOOM시티

Invest 풍부한 대학생 임대수요	Speed 봉담 IC 등 쾌속교통망	Life 완벽한 생활 인프라	Plan 혁신설계와 커뮤니티
-------------------------------	-------------------------------	---------------------------	---------------------------

[현 장]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길 4-18 일원
[홍보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65



총 324세대 도시형생활주택 288세대 / 오피스텔 36실
문의 1668-4924

※부동산개발업자 : (주)한국토지신탁, 서울시080010호 ※주영업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공급대상물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26-11번지 일원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용도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부대근생시설 ※규모 : 지하 4층, 지상 23층 17개동 ※대지면적 : 1,061㎡ ※건축연면적 15,278㎡ ※용적률 : 799.45% ※건폐율 : 76.03% ※건축허가(사업승인번호) : 2019-건축과-신축허가-377 ※시행사 : (주)한국토지신탁 ※시공사 : 대창기업㈜ ※위탁사 : 광덕디앤씨(주) ※분양대행 : (주)에스엔피 ※분양대금관리방법 : (주)한국토지신탁 자체관리 ※사업일정 : 2019년 11월 26일 착공 / 2019년 2월 분양예정 / 2021년 3월 준공예정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 100% 매입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음 ※잔금 완납시 지분등기 ※상기 사업개요는 최종 인-허가 내용에 따라 면적 및 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홍보물의 사진 및 일러스트, CG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로서 실제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색상, 인면, 디자인 패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표시된 거리표기는 네이버 지도기준 직선거리이며, 소요시간은 네이버 지도검색결과 오후 2시, 실시간 교통정보 포함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본 홍보물상의 개발계획, 교통계획 등은 해당사업 관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본 홍보물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제작물에 표기되지 않은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제28조 사항) 등은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하시어 담당자 및 상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